

지역 매 아리

고창군,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

고창군이 내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고창지구와 평지지구 2개소(총사업비 461억원, 국비 200억원 등)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고창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36억원(국비 100억원)을 들여 고창읍내 고창천 주변 상습 침수지역에 우수저류지와 배수펌프장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평지지구는(총사업비 225억원, 국비 100억원) 고수면 장두리에서 성송면 낙양리 구간의 평지천 3.4km의 하천정비와 마을에 배수로를 개선해 고수면 월계, 오산, 학산마을 일원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해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자연 친화적 환경조성과 주변정비로 지역주민 편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계화 유채쌀축제 벚꽃이야기 성황리 마쳐

계화면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계절을 즐겨야 한다는 주제로 펼쳐진 제3회 계화유채쌀축제 그리고 벚꽃이야기 축제를 지난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지역주민 및 관광객 5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축제준비 기간 중 태풍피해로 인한 악조건 속에서도 축제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이번 축제가 명실상부한 대표 농경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축제는 가을을 맞이하여 나들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 전 연령층이 고루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특히 간척농업의 중심지답게 새끼꼬기, 지게지고 벚꽃 운반 등 벚꽃을 이용한 전통농경문화체험을 마음껏 즐기도록 했다.

또한 김공, 독수리, 소, 호랑이등 살아 움직이는 듯한 대형 벚꽃 조형물과 벚꽃 그네, 움집, 허수아비, 곤포아트 등을 축제장 주변에 설치 전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김일규 축제위원장은 "이번 축제로 계화면의 유채쌀을 널리 알리고 전통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체험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며 "앞으로 더 발전된 계화 유채쌀 벚꽃축제를 준비하여 부안의 중심축제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계화면 관계자는 "축제추진위원회,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축제준비에 참여한 모든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로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관광객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천 교량 확 밝아졌다

하모교·상동교 등 8개소 스텝등 설치 완료

정읍시가 시민들의 최대 휴식처인 정읍천 내 교량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정읍천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천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읍천 교량 8개소에 하부(下部)조명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읍천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자전거길, 산책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곳이다. 그러나 교량 하단이 어

두워 그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정읍IC 인근 하모교부터 정읍 국유림관리소 인근 상동교까지 교량 7개소와 죽림폭포공원 인근 도보교 1개소에 스텝등을 설치했다.

이로써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됨을 막고 산책하는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연형 하천인 정읍천에 설치한 조

명시설은 생태계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객들의 눈부심 방지를 감안해 조명의 밝기를 정했다.

또 일출·일몰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점·소등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통행환경을 제공한다.

유진섭 시장은 "평상시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인 정읍천에 불편사항이 있는지 자주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정읍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경찰서가 27일 오전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과·계장, 지·파출소장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종합성과평가 향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창경찰서, '치안종합성과 향상 보고회' 개최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27일 오전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과·계장, 지·파출소장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종합성과평가 향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평가 진행 사항, 성과과제 수정·보완 사항, 기능별 향상 방안 보고를 통해 치안성과의 현 위치를 점검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

질적인 치안 활동과 신속·유기적인 업무 공조로 군민이 원하는 치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정환 경찰서장은 "남은기간 동안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주시고, 더불어 지역축제 등 치안현장에서 주민의 체감안전에 초점을 맞춰 경찰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농촌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우뚛'

고창군로컬잡센터, 취업자수 8월말 53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0% 증가

#1.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했던 정모(61)씨는 올해 7월 고창으로 귀촌해 일 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부족한 취업정보와 연령대에 맞는 일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정씨는 고창군로컬잡센터를 방문해 이력서 컨설팅과 상담을 받았다. 이후 본인 성격과 정바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군내 아파트단지 관리실 경비담당으로 취업하면서 제2의 삶의 살아가고 있다.

#2.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했던 최모(19)씨. 마을 이장님의 권유로 로컬잡센터를 찾은 일씨는 컨설턴트로부터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요령 등을 컨설팅 받고 고창군내 골프장에 동행면접을 통해 7월부터 직원으로 채용 돼 일하고 있다. 일씨는 '타 지역으로 일 자리 얻기 위해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로컬잡센터를 통해 외지에 나가지 않고 취업하게 되어 기뻐했다'고 말했다.

고창군로컬잡(JOB)센터가 개소 5개월 만에 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고창군로컬잡센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등록된 8월말 현재 고창군내 신규 취업자수는 536명으로 전년동기(297명) 대비 180%가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구인건수는 240건, 구



고창군로컬잡센터가 개소 5개월 만에 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직인원 885명, 알선 979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00~300%이상 늘었다. 특히, 잡센터는 구직등록자 536명 중 그간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 77명을 발굴해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로컬잡센터는 지난 4월, 고창읍 월곡동에 그린커뮤니티센터에 문을 열었다. 전문컨설턴트 5명을 채용해 고창군 14개 읍면별을 매일 방문해 구인·구직자를 직접 발굴, 상담 및 채용알선으로 높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인터넷 등 취업정보 취득이 어려운 고령의 취업희망자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하여 연계함으로써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있다.

이에 더해 로컬잡센터는 고창군 행정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먼저, 센터는 고창군 상생경제과장을 운영위원장으로 14개 읍면에 수시로 행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매월 이장단, 주민지원위원회, 부녀회장단 회의에 로컬잡센터가 참여해 다양한 구인·구직 수요를 파악하고,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내 주요기관과 단체, 축제 등 여러 일자리 수요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연계, 현장방문도 수시로 실시하면서 전문적인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팜파티' 로 우수 농산물 알리기 앞장

정읍시가 지역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나섰다.

이에 일환으로 시는 지난 28일 신대인읍에 소재한 포도농장에서 팜파티를 가졌다.

팜파티는 '포도밭 농부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 광주, 생협 회원들과 딸들이 꼬마농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농장에서 △유기농 포도 등 농산물 수확 △무당벌레와 거미 찾기 △와인 담그기 △포도잎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겼다.

전주에서 온 참여자 이미수씨는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포도를 먹으니 정말 맛있다"며 "지역의 유기농 농산물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팜파티 준비 단계에서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데 힘썼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노인일자리 하반기 신규사업 발대식 가져

(사)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지회장 김종열)는 최근 부안 컨벤션 웨딩홀에서 권익형 부안군수, 이한수 부안군의회의장, 최훈열 도의원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1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노인일자리 하반기 신규사업 발대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김종열 지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노인회에서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일 자리를 만들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우리 노인들 스스로가 일하는 노인! 존경받는 노인!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정당당한 일자리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권익형 군수도 "최고의 노인복지는 노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신념을 갖고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소득보장과 적극적 사회참여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사)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는 △ 소통봉사대 113명 △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40명이 참여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군으로부터 배정받아 수행하게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he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감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There are also images of a cartoon bear mascot and a map of the region.